6월 28일(월) / 레 16-18

▶ 내용요약 : 레위기 16장에는 속죄일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이는 일 년에 한 번 성소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하는 날이다. 이 날에는 특별히 두 마리의 염소를 취하여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 염소로 사용했다. 그 중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진 채 광야로 추방되었다. 17장에는 제물을 드리는 절차와 장소 등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또한 피를 먹지 말도록 명령하셨는데,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었다. 이후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악한 풍속이나 규례를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땅이 이스라엘을 토해낼 것이라고도 경고하셨다.
▶ 질문 : 속죄일에 광야로 추방되었던 염소는? (16장)
▶ 생각하기 : 이스라엘은 일 년에 한 번 속죄일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는 의식을 행하였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속죄일의 제사는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거나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줄 수 없다. 오직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해 히브리서 10장을 읽으라)

6월 29일(화) / 레 22-24

▶ 내용요약 : 레위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물을 먹을 때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을 구별해야 함도 지시하셨다. 한편 23장에는 성회로 공포할 하나님의 절기들이 기록되어 있다. 먼저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을 쉬어야 했다. 또한 첫째 달 열 나흗날 저녁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로,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에는 무교절로 지키도록 하셨다. 이 외에도 초실절과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다. 24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사람을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셨다.
▶ 질문 :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는? (23장)
▶ 생각하기 :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오늘 우리는 음식을 구분하거나 정결예식을 통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과 원리는 여전히 동일함을 기억해야 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은혜를 구하자.

6월 30일(수) / 레 25-27

▶ 내용요약 :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안식년은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시기 위한 규정이었다. 희년은 이러한 안식년이 일곱 번이 지난 다음 해 즉, 50년째가 되는 해를 가리킨다. 이때 모든 토지는 원래 소유자에게로 돌아가고, 노비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26장은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어서 순종에 대한 상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분명하게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저주와 벌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27장에는 서원 예물의 값과 십일조에 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다. 서원 예물의 값은 성별과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 질문 : 일곱 번의 안식년이 지난 다음 해는? (25장)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희년을 통하여 자유와 회복을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교훈하셨다. 우리의 신앙은 개인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구원을 통해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자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7월 1일(목) / 민 16-18

▶ 내용요약 :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다. 이들은 당을 짓고 모세를 대항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땅으로 그들을 집어삼키게 하심으로써 백성들 위에 모세를 세워주셨다. 이후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하셨다. 그리고 이튿날 열두 개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셨다. 모세에 이어서 아론의 권위와 역할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해주신 것이다. 한편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또한 백성들이 드린 헌물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 질문 : 누구의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열렸는가? (17장)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실 뿐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능력까지도 허락하신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존귀케 하심으로써 그들의 권위와 역할을 보호해 주신다. 우리 스스로를 작게 여기면서 위축되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리고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

7월 2일(금) / 민 19-21

▶ 내용요약 : 민수기 19장에는 부정을 씻기 위한 예식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고 멍에를 메지 않았던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잡게 하셨다. 이때 그 피는 회막 앞을 향해 일곱 번 뿌리고, 그것을 불살라 그 재를 진영 밖 정한 곳에 두어야 했다. 20장에는 가데스에서 물이 없음으로 인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다. 모세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분을 내고 반석을 지팡이로 두 번 쳤다. 이로 인해 백성들에게는 물을 공급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인해 모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했다. 한편 20장에서는 미리암에 이어 아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났다. 21장에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으로 심판하시고 놋뱀을 통해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 질문 :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본 것은? (21장)
▶ 생각하기 : 온유한 사람이었던 모세도 반복되는 백성들의 불평으로 인해 분을 내었다. 이처럼 섬김의 자리에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사역의 자리에서 분을 내지 않도록 주의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7월 3일(토) / 민 22-24

▶ 내용요약 : 민수기 22-24장에서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이에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모압 왕 발락은 지역의 선지자인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다. 처음에 발람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사람을 발람에게 보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발람이 가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을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위해서였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대로 네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였다.
▶ 질문 : 네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을 축복한 사람은? (22-24장)
▶ 생각하기 :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모압 왕 발락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압 왕이 초청한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이 견고한 이유,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로마서 8:31)"

7월 4일(일) / 민 25-27

▶ 내용요약 : 민수기 25장에는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인 타락이 아니었다. 모압 여인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남녀를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였다. 한편 26장에는 광야 생활의 막바지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십 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도록 명령하셨다. 그러나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그들은 정탐꾼들의 악평을 듣고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모두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27장에서는 슬로브핫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왔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 기업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만약 아들이 없는 경우,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명령하셨다.

▶ 질문 : 음행하는 남녀를 심판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한 사람은? (25장)
▶ 생각하기 :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성경은 매우 시대착오적인 계명으로 가득한 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당시 고대 근동의 기준으로 보면, 여성과 아이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게 매우 급진적인 태도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시대적 배경을 담고 있을 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지금과 동일함을 기억해야 한다.